

研究 秦東古典

第 45 輯

翰林大學
秦東古典研究

2020. 12.

金石錄

錄

荀子勸學篇中語
書于閱經樓
青溪任昌淳



유교부식회(儒敎扶植會)의 『인도(人道)』 연구*

서정화**

〈차 례〉

1. 서론
2. 유교부식회의 성립과 『인도』의 발행
3. 『인도』의 구성 및 성격
4. 결론

[국문초록]

1920~36년은 일제가 강압적인 무단통치에서 기만적인 문화통치로 정책 기조를 바꾸었기에 200여 종이 넘는 잡지가 발행되었다. 특정 단체의 이익이나 종교, 예술 등을 표방하는 잡지들이 등장했고, 유교단체에서 발행한 잡지도 다수 있었다. 『인도』는 충남 홍성에 기반을 두고 활동한 유교부식회가 발행한 기관지이다. 유교부식회는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했던 김복한의 후손 및 제자들이 결성한 단체였다. 대부분의 유교단체가 식민지 관료와 친일파 인사가 주축한 어용단체였음에 비해 유교부식회는 항일·민족적 성격이 강한 단체였다.

본고는 유교부식회가 발행한 『인도』의 발행과 성격에 대해 고구하였다. 『인도』는 1929년 6월 15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1931년 3월 15일 중간호까지 1년 9개월간 통권 9호를 발행했고, 『유교부식회보』 1호도 발행했다. 일제의 검열 때문에 전문 또는 몇 행이 삭제되는 일이 많았고, 9개월간 휴간하기도 했다.

『인도』는 유교잡지이면서도 문예, 실용, 교양, 시사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종합잡지이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는 유교 전문잡지답게 경전의 구절 해설, 공자의 추송, 유교의 정체성 확립 등과 관련된 원고를 수록하고 있지만, 유교의 현재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둘째, 『인도』는 교양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 농촌, 가정 등의 강좌를 마련하고, 시사용어를 소개하는 등 계몽적 성격이 강하다. 셋째, 『인도』는 문명국을 자부하고, 단군을 소환하며, 조선 민중을 우선시하는 등 민족적, 항일적 성격이 짙다.

[주제어] 유교부식회, 『인도』, 잡지, 유교단체, 현재화, 민중화, 실용화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조교수 spr9015@naver.com

1. 서론

잡지는 특정의 제호 아래 주간, 순간, 반월간, 월간, 계간, 연간 등의 시기를 두고 편집·발행하는 출판물을 말한다. 인쇄된 문자, 사진 등으로 구성되다는 점에서 신문이나 서적과 다르지 않지만, 차이점도 있다. 정기간행물이라는 점에서 서적과 구별되며, 발행 간격이 길고 정보 전달보다 의견 전달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신문과도 구별된다.¹⁾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는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재일조선인 학생들이 발행한 『친목회회보(親睦會會報)』(통권 6호)를 거론한다. 하지만 본격적인 잡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최남선의 발행한 『소년(少年)』(통권 23호)이며, 대표적 종합지로는 『개벽(開闢)』(통권 85호)을 꼽는다.

3·1운동을 기점으로 일제는 강압적인 무단통치에서 기만적인 문화통치로 정책 기조를 바꾼다. 일제의 하라 타카시(原敬) 수상은 조선인들을 무마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관제를 개정했고, 제3대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는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했다.²⁾ 출판물 관리법도 다소 완화되어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등이 창간되고, 『개벽』, 『신천지』, 『동명』 등의 잡지가 발행된다. 문화통치기에 창간한 잡지가 200여 종이 넘을 정도였으니,³⁾ 이 시기는 잡지의 전성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특정 단체의 이익이나 종교, 분야를 표방하는 잡지들도 등장했다. 『동명』·『동광』·『조선문단』 등은 민족주의 계열의 잡지이고, 『신천지』·『신생활』·『조선지광』은 사회주의 계열의 잡지이다. 『삼광』·『음악계』 등의 음악잡지, 『농민』·『조선농민』 등의 농민잡지, 『수리계』·『과학』 등의 과학잡지도 발행되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종류가 많은 것은 『백조』·『폐허』 등의 문학잡

1) 잡지의 정의 및 여타 매체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김근수, 『한국잡지연구』, 한국학연구소, 2004, 7쪽.

2) 박찬승, 『한국독립운동사-해방과 건국을 향한 투쟁』, 역사비평사, 2014, 172~173쪽.

3) 김근수, 앞의 책, 9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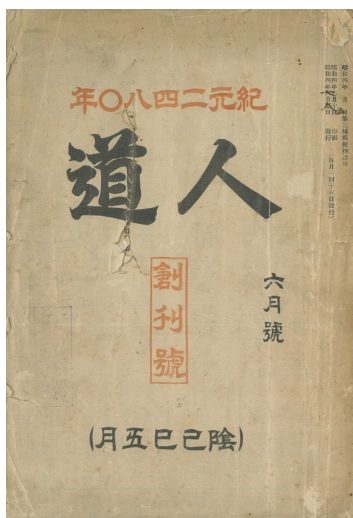
지였다.⁴⁾

문화통치기에는 종교잡지도 많이 발행되었다. 『금강저』·『불교』는 불교에서, 『신인간』·『동학지광』은 천도교에서, 『활천』·『신생명』은 기독교에서 발행하는 잡지였다. 유교를 표방하는 잡지도 다수 있었다. 중앙의 유교단체에서 발행한 것으로는 경학원의 『경학원잡지』, 대동사문회의 『대동사문회보』, 유도진흥회의 『유도』, 조선유교회의 『일월시보』가 있다. 지방 유교단체에서 발행하는 것으로는 강원도유도천명회의 『유도천명회보』, 전라남도유도창명회의 『창명(彰明)』, 유교부식회의 『인도』가 있다.⁵⁾

일제는 조선을 병합하자마자 성균관을 경학원(經學院)으로 변경하여 유림을 장악하기 시작했지만, 여타의 유교단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3·1 운동 이후 유림을 회유하기 위해 유교단체 설립 기준을 완화했다. 중앙과 지방에서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 조선교풍회(朝鮮矯風會), 조선유교회(朝鮮儒敎會), 인도공의소(人道公議所), 평양대동유림회(平壤大同儒林會) 등 수많은 유교단체가 설립되어 활동했고, 이들 유교단체에서 발행한 잡지(또는 기관지)는 대략 10종 중 88개의 권호였다.⁶⁾

본고는 종교잡지 중에서 1929년 6월에 창간호를 시작으로 통권 9호를 발행한 유교부식회의 잡지 『인도』의 체제 및 성격을 고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⁷⁾

-
- 4) 전문잡지이든 종합잡지이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문예란’을 마련했기 때문에 잡지에서 문학은 필수가결한 요소이기도 했다. 분야별 잡지 종류에 대해서는 이중한, “잡지”,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 5) 1937~45년에 발행된 것으로 조선유도연합회의 『유도(儒道)』(1942~1944), 개성명륜회의 『명륜(明倫)』(1939)이 있다.
 - 6) 변은진,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 기관지의 현황과 성격」,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목록』, 도서출판 선인, 2020, 9~10쪽.
 - 7) 김상기는 유교부식회와 『인도』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개략을 살폈다. 박태일은 김상기의 연구를 한층 보완하여 『인도』의 발행 규모 및 집필진 등을 상세하게 다루었고, 『인도』에 수록된 시, 수필, 소설, 희곡 등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필자는 『인도』 통권 9호 중 제1호, 제2호, 제7호, 제9호를 확보하지 못해 자료적 한계가 있다.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두 선생님의 연구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선행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金祥起, 「한말 일제하 洪城지역 儒林의 형성과 향일민족운동」, 『한국 근현대사 연구』 31, 한국근현대사학회, 2004, 85~108쪽; 박태일, 「홍성의 유교 잡지 『인도』 문예면」, 『批評文學』 69, 한국비평문학회, 2018, 111~186쪽.



[그림 1] 『인도』 창간호(홍주성 역사관)

『인도』는 지방 유교단체에서 발행한 잡지로, 통권 9호에 그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첫째, 일제가 유림을 우대할 것은 유림을 회유하여 조선을 수월하게 통치하려는 의도였다. 이 당시에 활동했던 유교단체 중 경학원은 물론이고 대동사문회, 유도진흥회, 조선유교회, 강원도유도천명회, 전라남도유도창명회 등은 식민지 관료와 친일파 인사가 주도한 어용단체였다. 그런데 유교부식회는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했던 김복한(金福漢)이 조직한 인도공의소(人道公議所)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발기인 6명 중 한 명인 김은동(金殷東)은 김복한의 맏아들이자, 통권 9호까지의 발행인이다. 또한 홍성은 한말 홍주의병의 근거지이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유교단체 중에서 항일운동가의 후손 및 제자들이 설립하여 발행한 잡지가 『인도』이다.

둘째, 유교 전문잡지로서의 성격은 경학원, 유도진흥회, 조선유교회, 유도창명회에서 발행하는 잡지의 목차나 체제를 보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인도』 역시 유교단체에서 발행하는 유교 전문잡지이다. 『인도』는 공자를 기리고, 유가 경전을 해설하고, 유교의 덕목을 선전하기 위한 꼭지를 앞부분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 문예, 농촌생활, 시사

용어 등의 꼭지도 마련하여 전문잡지임에도 종합잡지적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 『인도』는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은 잡지이다. 통권 9호는 발행호수가 적은 편에 속하고, 매월 발행하기로 한 발행주기도 들쭉날쭉하며, 기획기사가 다음 호에 게재되지 않아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인도』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되었던 대다수 잡지의 현주소, 곧 재정난, 검열난, 원고난이라는 삼대난을 겪고 있던 항일잡지의 실태를 오롯이 보여주고 있다.

『인도』에 대해서는 발행인과 발행주기, 성립, 집필진 등의 대체적인 논의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다.⁸⁾ 하지만 『인도』 자체보다는 부분으로, 또는 일부분을 다루고 있어 전체에 대한 상이 선명하게 와 닿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인도』의 발행과 체제는 물론이고, 내용을 중심으로 『인도』의 잡지사적 성격에 대해 고구함으로써 『인도』의 진면목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2. 유교부식회의 성립과 『인도』의 발행

1) 유교부식회의 성립과 정체성

유교부식회는 1927년 4월 15일 오석우(吳錫禹), 김은동(金殷東), 이우직(李禹植), 김노동(金魯東), 성원경(成元慶), 전용옥(田溶域) 6인의 발기로 홍성군(洪城郡) 서부면(西部面) 이호리(梨湖里)에 있는 김은동의 집에서 결성되었다.⁹⁾ 그런데 유교부식회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했던 김복한을 중심으로 1920년 5월에 조직된 인도공의소에서 시작한다. 인도공의소는 경성에 본부를 두고 있었지만 실제 활동은 충남 홍성의 유림들이 중심이었고, 유교부식회의 발기인 중 김은동과 김노동은 김복한의 아들이고, 오석우·이우직·전용옥은 김복한의 제자였다.¹⁰⁾

8) 김상기, 박태일 참조.

9) 『儒敎扶植會報』 1호, 「本會歷史」, 21~22쪽.

유교부식회는 ‘위천지입심(爲天地立心)’, ‘위생민입도(爲生民立道)’, ‘위거성계절학(爲去聖繼絕學)’, ‘위만세계태평(爲萬世開太平)’을 4대 강령으로 내세웠는데, 송나라 장재(張載)의 말에서 따온 것이다. 별도로 신기한 것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장재의 말 속에 이미 현대 유교에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¹¹⁾

1927년 5월 5일에 유교부식회는 이상규(李相逵)를 회장으로 추대하여 총무, 재무 등의 간사를 뽑고 규약을 통과시켰으며, 1년 뒤인 1928년 3월 28일 홍주향교 명륜당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했는데, 이때 참석한 회원은 390여 명이었다.

회장: 이상규(李相逵)

내총무: 오석우(吳錫禹) 외총무: 김은동(金殷東)

서무부: 김익한(金益漢), 전용옥(田溶燾)

재무부: 이우직(李禹植), 황예성(黃禮性)

문화부: 김노동(金魯東), 엄창섭(嚴昌燮)

심찰부: 김경태(金璟泰), 황일성(黃伯性)

선전부: 최명용(崔鳴鏞), 성원경(成元慶), 한정우(韓靖愚), 김동한(金東翰)

교제부: 정태복(鄭泰復)

출판부: 김우현(金宇鉉), 주선중(朱宣鍾)

정의원: 백관형(白觀亨), 엄주훈(嚴柱勳)¹²⁾

초대 임원들은 큰 변동 없이 해산하던 1931년 12월 16일까지 중추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은동, 최명용, 황일성, 전용옥은 여러 차례의 순회 강연을 도맡을 정도로 대내외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인도』는 제7호를 발행한 뒤 9개월간 휴간되었다가 제2-1호(통권8호)를 발행한다. 이때 한병창

10) 김상기, 앞의 논문, 97쪽; 박태일, 앞의 논문, 127~128쪽.

11) 『人道』 3·4호, 吳錫禹, 『儒敎扶植會의 綱領』, 118쪽.

12) 『儒敎扶植會報』 1호, 『本會歷史』, 24쪽.

(韓炳昶)이 합류하여 인도사(人道社)를 인수하고 속간(續刊) 작업을 계속하지만, 인도사의 업무는 물론이고 『인도』의 집필 등에도 인용문의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근래 소위 유교의 원로 아니 순전한 한학자들이 그의 목적이 과연 나변(那邊)에 재(在)한가. 일완현성반(一碗現成飯)에 고복(高腹)이 편편(便便)해야 찾는 이 도연명(陶淵明)의 북창 아래에 고침(高枕)을 도두비고 독선기신(獨善其身) 위방불입(危邦不入)만 부르고 있다. ㄸ ㄱ 문집거리로 왈심(曰心)은 엇더니 왈성(曰性)은 엇더니 할 ㄸ ㄴ 이다. 심성에 대하여 분명히 변증하는 것이 엇지 유가의 상당(相當)히 할 일이 아니리오마는 진동보(陳同甫)의 말을 회고할진대 능히 한안(汗顔)의 부그림이 업슬가. 골육의 동통(疼痛)도 물으는가. 심이 무엇인가. 사생도 분변치 못하는 것이 이것이 심이냐. 성이 무엇인가. 세월도 짐작 못하는 것이 성이냐.¹³⁾

인용문에서 언급한 진동보(陳同甫)는 송나라 진량(陳亮)을 가리킨다. 그는 실제의 효용을 중시하는 「중흥오론(中興五論)」 등의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는데, 이학(理學)의 공리공담을 반대하고 사공(事功)의 실질적인 효용을 중시했다. 또 왕도와 패도, 의리와 이익이 반드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주희(朱熹)와 13년 여에 걸쳐 논쟁을 벌였고 후에 주자학파에게 공리를 주장하는 자라고 하여 섭적(葉適)과 함께 배척당하기도 했다.¹⁴⁾ 당시 사람들이 유교를 비판한 이유는 제 한 몸을 수양하느라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고, 심이니 성이니 하며 지나치게 사변적이어서 현실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인도』는 유교의 선전과 교화를 목표로 발행한 잡지이지만, 전통의 유교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을 겸비하고 시대에 걸맞은 유교로 탈바꿈하고자 했다.

13) 『人道』 3·4호, 金殷東, 「八月二十七日을 마지며」, 13쪽.

14) 진량에 대해서는 『宋史』 卷436, 「陳亮列傳」 및 『朱子全書』 卷36, 「與陳同甫」 참조.

외국의 학술이나 정치가튼 것은 덩허노코 이것이 이적(夷狄)이니 금수니 하여 조금도 연구며 고증할 생각도 업다. 그러면 중국은 외국이 아니냐. 아니다. 그들의 뇌에는 중국은 절대로 외국은 아니다. 조선은 소중화요, 중국은 대중화라 이소사대(以小事大)의 당연한 의무가 잇슬 새TTL만 아니라 공자를 존송하기 새TTL문에 중국 전부를 존송한 게 된다. 황제(黃帝)는 알지어정 단군(檀君)은 몰으고 허저(許褚)·장비(張飛)는 알지어정 양만춘(楊萬春)·김유신(金庾信)은 몰으고 지금도 오히려 명나라의 숭정기원(崇禎紀元)은 생각할지언정 단군의 건국기원(建國紀元)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달음이 아니라 춘추의 대의를 아모 맛도 몰으고 그저 탄조(呑棗)의 격(格)으로만 생시1여 소화되지 못한 시1답이니 성현의 난 곳이 성현이 아니요, 성현의 종족이 성현이 아니다.¹⁵⁾

유림들이 중국을 추앙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자가 태어난 국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하자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키려 했고, 조선을 소중화로 자처하며 중국 떠받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일방적 짝사랑은 중국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고, 또 서양의 문물에 대해 격한 거부감으로 이어져 시대에 뒤떨어지고 말았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서양의 과학기술을 따라잡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유교부식회의 판단이었다. 아울러 사대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인물을 중심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 이것은 내부의 목소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들의 목소리도 이와 같았다.

한용운(韓龍雲): 또 지금에 적응한 도(道)가 잇는 것이 이것이 비로소 참된 유교의 진리하고 할 것입니다. 시대를 켜나서는 도덕도 업고 시대를 켜나서는 정치도 업나니…… 이 짱 이 날의 참된 유교를 적용하면 엇지 찬연한 광채가 업겟습니까.

권동진(權東鎭): 조선의 참된 유교는 반듯시 조선의 독특한 정신이 잇슬 것이니 이 독특한 정신 아래에 유교가 부흥한다면 나는 어니 새까지 유교를 위하여 정축

15) 『人道』 3・4호, 金殷東, 「八月二十七日을 마지며」, 13쪽.

불이(頂祝不已)하겠습시다.

황상규(黃尙奎): 우리 운동자(運動者) 방면의 눈으로는 유교라는 것은 당연히 박멸하여야 될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생활이 좀 여족하면 사랑에 안저서 가리침이나 곤두세고, 생활이 좀 궁하면 족보권(族譜卷)이나 맨들어 조상을 팔아먹을 뿐입니다.

박희도(朴熙道): 유교가 원래 종교적 색채보다 정치적 색채가 농후한 것은 누구나 다 시인하는 바 나는 일찍이 경제를 썩은 정치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 윤리와 도덕도 경제의 기반이 없으면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재홍(安在鴻): 광제(匡濟)의 성(誠)이란 마음 쁘으로 아니 되고 현대의 사정과 현대 지식과 현대의 방책을 잘 아는 것이 긴요하니, 구습을 묵수하는 것이 안 될 것은 물론 구시대의 도학편중의 학문으로는 실로 이 시대에서 나갈 수 업을 것이 어늘……

『인도』는 “유림계에 대한 각 방면 인사의 희망”¹⁶⁾이란 꼭지를 마련했는데, 인용문은 외부 인사 몇몇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외부 인사들의 조언을 요약하면 현재를 인식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사공(事功)에도 힘을 기울이라는 것으로, 앞에서 김은동이 내렸던 현재 유교의 문제와도 일치한다.

유교부식회에서는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적용하여 자신들이 나아갈 바로 삼았다. 그러나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다. 유교부식회는 창립하고부터 “신진들에게 반동이라 비난 받고, 상궁자(傷弓者)들에게는 협잡(挾嫌)알이라는 공격을 받고, 완고한 유림계에서는 경조무지(輕躁無知)한 무리”¹⁷⁾로 따돌림 받았다. 그럼에도 유교부식회의 목표와 의지는 분명했다.

16) 『人道』 3·4호에 수록한 각 계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韓龍雲, 「時代에 適應한 儒敎를 行하라」(89~90쪽); 權東鎮, 「自我의 精神을 일치하라」(90~91쪽); 俞鎮泰, 「나는 一個의 선비를 보지 못하였다」(92~93쪽); 黃尙奎, 「階級을 먼저 撤廢하라」(93~94쪽); 朴熙道, 「經濟的 覺醒이 第一急務이다」(95쪽); 安在鴻, 「現代化의 儒林으로」(96~98쪽); 宋鎮禹, 「第一虛文煩禮를 버리라」(99~100쪽); 李源燦, 「自己의 地位를 忘却하지 마라」(100~101쪽); 金炯元, 「學的 價値만은 是認한다」(101~102쪽).

17) 『人道』 3·4호, 吳錫禹, 「儒敎扶植會의 創立」, 111쪽.

그러면 소위 사람의 할 일과 사람의 갈 길이 과연 무엇이나…… 결국 ‘위생민입도(爲生民立道)’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니, 도는 즉 생민이 현실을 유지하는 근본의 문제이다. …… 유교는 생민의 대도를 위하여 운동을 계속 하였었다. …… 유교부식회의 운동 유교라는 것은 근본 생민의 썩어나지 못하는 대도(大道)인 중(中) 더욱 우리 조선에 잇서서는 문명의 기초가 이로부터 발전 되었었스니 지금 다시 무슨 부식을 운동하는 것은 혹 대방가의 우습거리가 될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처지로는 이 날을 당하여 이 부식의 운동을 아니 할 수가 없다.¹⁸⁾

유교가 원래 생민의 대도에 버서나지 아니한 것은 동양의 역사가 절실히 증명하는 바이다.¹⁹⁾

이 시대 운동에 민중화(民衆化)를 목표 삼고 백난(百難)을 무릅쓰며 분연히 세상에 나타난 유교부식회가 비록 여러 가지 환경의 핍박을 마더 확대의 성공을 보지 못하였으나……²⁰⁾

인용문은 오석우가 유교부식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 글이다. 오석우는 유교부식회의 발기인이자 총무 등을 역임한 핵심 임원이고, 순회강연에 여러 차례 참여한 유교부식회의 핵심 인물이다. 오석우는 「유교부식회의 전환기에 임하여」라는 제목으로 17쪽에 걸쳐 ‘유교부식회의 운동’, ‘유교부식회의 창립’, ‘유교부식회의 주의’, ‘유교부식회의 강령’, ‘유교부식회의 전환기’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다. 편집부에서도 이 논문을 지목하여 제3·4호에 수록된 원고 중에서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고 했다.²¹⁾

이 논문은 유교부식회의 성격과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눈에 띄는 지점은 “생민”과 “민중화”이다. 생민은 앞서 소개한 유교부식회의 4대

18) 『人道』 3·4호, 吳錫禹, 「儒教扶植會의 運動」, 108~109쪽.

19) 『人道』 3·4호, 吳錫禹, 「儒教扶植會의 主義」, 115쪽.

20) 『人道』 3·4호, 吳錫禹, 「儒教扶植會의 綱領」, 118쪽.

21) 『人道』 3·4호, 편집부, 「編輯餘墨」, 卷尾. “또 吳錫禹 씨의 「儒教扶植會의 轉換期에 對[臨]하여」라는 논문은 어디로 보든지 본지로서는 가치의 논문이라고 할 것이다.”

강령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도』는 9개월간 휴간되었다가 제2-1호(통권8호)를 속간한다. 그 첫머리에 대야(大治)의 ‘위생민입도(爲生民立道)’라는 휘호가 한 쪽 전체를 장식하고 있는데, 대야는 초대회장을 지낸 이상규의 호이다. 이것은 유도부식회의 주된 목표인 유교의 선전과 교화가 유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민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아울러 유교부식회의 기관지인 『인도』에 실용란, 문예란, 시사란 등의 비중이 높은 것도 생민의 교양과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2) 『인도』의 발행과 삼대난(三大難)

유교부식회는 1929년 1월 26일에 교화를 선전하기 위해 인도사(人道社)를 설치하고 매월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잡지를 간행하기 위해 실무진을 꾸렸는데, 편집부장에 김은동, 영업부장에 황일성, 서무부장에 정태복을 선임했다.²²⁾ 1929년 6월 15일에 창간호를 발행하고, 1931년 3월 15일에 중간호를 발행했다. 창간호부터 중간호까지 발행 기간은 1년 9개월로, “매월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했다면 통권 22호까지 발행했어야 하지만, 실제 발행은 통권 9호에 그쳤다.

[표 1] 『인도』의 발행사항²³⁾

권호	통권	발행일	총 쪽수	발행인	인쇄인
1	1	1929년 6월 15일	74	김은동	황일성
2	2	1929년 7월 20일	110	김은동	황일성
3·4	3·4	1929년 9월 25일	262	김은동	황일성
5	5	1929년 11월 6일	156	김은동	황일성
6	6	1929년 12월 6일	182	김은동	황일성
7	7	1930년 1월 30일	104	김은동	황일성
2-1	8	1930년 10월 20일	162	김은동	손재학
2-2	9	1931년 3월 15일	96	김은동	박인환
회보	1	1930년 11월 7일	41	오석우	황일성

22) 『儒敎扶植會會報』 1호, 「本會歷史」, 25쪽.

23) 『인도』의 제1호, 제2호, 제7호, 제2권2호의 발행사항은 박태일, 앞의 논문, 119쪽 주석

『인도』를 매월 발행하겠다는 계획은 제5호, 제6호, 제7호에만 달성하고, 나머지는 발행일이 들쭉날쭉하다. 먼저 1929년 8월에 발행해야 할 『인도』 3호는 “여러 가지 환경의 不自由”²⁴⁾스러운 상황 때문에 제때에 내지 못하고 9월에 제4호와 합간(合刊)했다. 제8호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아서 제7호를 발행한 지 9개월 만에 발행했으며, 권호도 제8호가 아니라 ‘제2권 제1호’라는 제호와 함께 ‘갱소호(更甦號)’라는 부제를 달았다. 그리고 다시 5개월 뒤에 제2권 제2호를 발행하지만 이것이 『인도』의 중간호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신문과 잡지는 재정난, 원고난, 검열난이라는 삼대난을 겪어서 창간호가 중간호가 되고, 월간이 계간이나 연간이 되는 것이 보통이었다.²⁵⁾ 이에 비하면 『인도』는 통권 9호까지 발행했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도 있으나, 삼대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먼저 재정난의 경우를 보자. 일제강점기의 유교단체, 곧 경학원, 대동사문회, 유도진흥회, 조선유교회, 개성명륜회, 강원도유도천명회, 전라남도유도창명회는 관변단체로 분류된다.²⁶⁾ 그 중에서 지방유교단체인 전라남도유도창명회²⁷⁾가 발행한 『창명』은 1923년 7월 창간호부터 1925년 1월 중간호까지 통권 5호를 발행했는데, 발행주기가 대략 4개월로 안정적이었다.²⁸⁾ 전라남도유도창명회는 기관지 『창명』 외에 『회중논어(懷中論語)』를 발행했는데, 지방비의 보조를 받아 피제(皮製)가 7백 권, 포제(布製)가 1천 3백 권 도합 2,000

20번, 122쪽 주석 30번, 123쪽 주석 33번을 참고하여 보완했다.

24) 『人道』 3·4호, 「社告」, 卷頭.

25) 김근수, 앞의 책, 52쪽.

26) 다만 개성명륜회를 주도한 공성학(孔聖學)은 경학원 사성을 역임한 인물이지만, 항일비밀결사 ‘조선민족해병협동당’의 물자를 지원하여 일제에 협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일제 말까지 비밀결사를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변은진, 앞의 논문, 22쪽 주석 38번 참조.

27) 전라남도유도창명회는 1922년 3월 25일, 26일 이틀에 걸쳐 전남 도청 회의실에서 발회식을 거처며 결성되었다. 이 당시 전남지사는 원응상(元應常)으로, 그는 강원지사로 재직시 친일 유립단체인 유도천명회를 조직한 인물이었다. 전라남도유도창명회 탄생에 산파역을 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참여관 석진형(石鎭衡) 역시 일본의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한 친일파 식민관료였다. 이에 대해서는 정옥재, 『彰明』의 구성과 성격, 『전라남도유도창명회 『彰明』』, 선인, 2020, 14~15쪽 참조.

28) 『창명』의 발행일은 제1호 1923년 7월 5일, 제2호 1923년 11월 15일, 제3호 1924년 4월 30일, 제4호 1924년 9월 10일, 제5호 1925년 1월 10일이다.

부가 간행되었다.²⁹⁾

이에 비해 『인도』는 재정난이 심각했고, 재정은 회원들의 후원에 의지했다. 오석우는 “물질의 방면으로는 일완(一畚)의 냉반(冷飯)과 일작(一勺)의 청수(淸水)로 근근히 삼년간의 생명을 유지해야 온 것은 몇몇 임원들의 조금도 은휘(隱諱)업는 사실이었다. …… 물질의 능력이 업스면 이 회의 장래기반이 위태(危殆)에 빈(瀕)하고 말 것이다.”³⁰⁾라고 유교부식회 창립 후 『인도』를 발행하기까지 3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인도』를 발행하고 나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인도사 영업부에서는 “본사의 고통은 무엇보다도 정성의 힘으로써 물질의 힘을 저항할 수 업사오니 이것을 동정하사 얼마 아니 되나마 본지 대금을 혜연(惠然)히 투송(投送)”³¹⁾하기를 부탁하는 공고를 냈다. 유교부식회가 후원과 독지로 유지되기는 했지만, 한 호에 3,000~5,000부를 발행하여 유통하는³²⁾ 현실적 상황을 유지하기란 만만치 않았다.

다음은 원고난이다. 유교부식회의 활동은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주요 인물들은 충남 지역 회원들이었다. 『인도』가 유교부식회의 기관지인 이상 주요 회원들로 필진을 구성하는 것은 그리 새로운 것이 없다. 문제는 주요 회원들의 집중도가 높다는 점이다. 『인도』의 필진이 수록한 횃수를 살펴보면 심상직(沈相直)이 17편, 손재학(孫在學)이 11편, 오석우가 11편, 김은동이 9편, 황예성이 9편, 손운(孫雲)이 9편, 전용육이 7편, 최명용이 6편, 현현자(玄玄子)가 6편, 황일성이 6편이다. 심상직은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문 번역과 한시, 시조 등을 주로 실었다. 손재학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유교부식회의 정식 회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제2-1호의 인쇄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동아일보 홍성 주재기자를 맡으면서 김은동과 함께 신간회 홍성지회에서 활동한 것을 볼 때 유교부식회 회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³³⁾ 그리고 김은동, 황예성, 전용육, 최명용은 유교부식회

29) 김봉곤, 「일제의 종교정책과 유교-전남의 유도창명회(儒道彰明會)와 관련하여」, 『한국종교』 40,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2016, 174쪽.

30) 『人道』 3·4호, 吳錫禹, 「儒敎扶植會의 創立」, 114쪽.

31) 『人道』 3·4호, 「謹告」, 卷尾.

32) 박태일, 앞의 논문, 127쪽.

의 핵심인물이었다.³⁴⁾

『인도』는 「독자투고란」을 두어 집필진의 다양화를 도모했다.³⁵⁾ 하지만 이 역시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제3·4호에 12편, 제5호에 2편, 제6호에 4편, 제2-1호에 5편이 수록된 것을 고려할 때 투고자가 많아 심사를 거친 것이 아니라 투고하면 수록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모산포객(茅山浦客)이 제3·4호에 3편을 투고하고, 해동자(海東子)가 제3·4호와 제2-1호에 투고한 것을 보면 독자 투고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집중도는 야심차게 기획한 ‘현상 모집’에서도 이어진다. 유교부식회는 9월에 발행한 제3·4호에서 “신년(新年) ‘논문’과 문예모집”을 광고했는데,³⁶⁾ 이 원고들은 다음 해 1월호에 수록할 예정이었다. 제5호에서는 양식과 주제, 형식, 기한 등 현상모집 규정을 안내했다.³⁷⁾ 현상 원고는 제7호와 제2-1호에 걸쳐 수록했는데,³⁸⁾ 투고자의 중복이 눈에 띈다. 제2-1호에 수록된

33) 『인도』의 주요 집필진과 이들이 수록한 편수는 박태일, 앞의 논문, 130~139쪽 참조. 박태일은 집필진이 각 호에 수록한 작품을 주석을 통해 자세하게 밝혔고, 집필진을 수직적 세대로 구분하여 김복한 주변 그룹과 김복한의 후손 및 제자 그룹으로 구분했다. 또한 주요 집필진의 인적사항까지 소개하여 유교부식회의 개락을 살피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34) 김은동은 『인도』의 통권 9호까지의 발행인이고, 오석우·전용옥과 함께 유교부식회의 발기인이었으며, 최명용, 황일성, 황예성은 총무와 문화부, 선전부 등을 돌아가며 역임한 유교부식회의 간부였다. 또한 유교부식회는 지역 순회 강연을 열었는데, 주요 강연자는 김은동, 최명용, 황일성, 전용옥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유교부식회보』, 『본회역사』, 21~27쪽 참조. 주요 집필진 중 손운과 현현자에 대해서는 미상이나, 손운은 손재학일 개연성이 있다.

35) 『人道』 5호, 「투고란을 두고」, 44쪽. “본지에 대한 소감이나 희망이나 해지방(該地方)에 잇는 선행과 악행이나 한시, 신시, 시조, 민요 등 무엇이던지 좇습니다. 자수, 행수도 상관업고 기한도 제한 업습니다.”.

36) 『人道』 3·4호, 248쪽.

37) 『人道』 5호, 卷頭. 참고로 현상금은 논문 1등 1인 20원(圓), 2등 1인 10원이고, 고시는 1등 1인 5원이고, 읍시·신시는 1등 각 1인당 4원이며, 고시·읍시·신시 2등 각 1인에게는 『인도』의 반년 구독권이였다.

懸賞 新年‘論文’及‘文藝’募集規定

論文: 儒敎의 過去와 將來(1행 24자 500행 이내). 國漢文間文體隨意

古詩: 安市城主破敵歌. 押韻隨意

律詩: 新年貧家歎. 押韻隨意

新詩: 새해의 님 생각. 押韻隨意

限: 本年 12月 30日(陰11月 末日) 本社 到着

發表: 新年號(陰 庚午 1月號) 當選文 本誌 掲載

38) 현상 원고는 심사를 거쳐 1930년 1월에 발행한 제7호에 논문과 고시 1등, 신시를 수록하고,

현상 원고를 살펴보면 임호철(林浩喆)은 고시 「안시성주과적가(安市城主破敵歌)」에서 2등, 「신년빈가탄(新年貧家歎)」에서 등외로 수록되었으며, 「신년빈가탄」 등외로 수록된 임성철(林成喆)과는 형제 항렬이다. 「신년빈가탄」에서 1등한 이성래(李成來)는 같은 호의 독자투고에 「칠로시(七老詩)」라는 한시를 투고하기도 했다. 「신년빈가탄」 등외인 이재성(李在性) 역시 같은 호의 독자투고에 『인도』의 속간을 축하하는 「송인도사(頌人道社)」를 투고했다.³⁹⁾

마지막으로 검열난이다. 1920년대 대표적 종합잡지 『개벽』은 천도교청년회 발행으로 1920년 6월 창간되어 1926년 8월 강제 폐간되기까지 72호를 발간한 종합잡지이다. 그 후 1934년 11월, 1946년 1월 두 차례나 복간되어 통권 85호까지 간행되었다. 창간호는 발간과 동시에 표지(호랑이 그림)와 「금쌀악」·「옥가루」 등 몇몇 기사가 문제가 되어 일제에게 전부 압수되었다. 이에 문제가 된 기사를 삭제하고 호외(號外)를 냈으나 이것마저 압수되어 다시 임시호(臨時號)를 발행했다. 그 뒤에도 시련은 계속되었고, 1926년 8월 1일 통권 제72호(8월호)를 끝으로 폐간될 때까지 발매금지(압수) 40회 이상, 정간 1회, 벌금 1회 등 많은 압력과 박해를 받았다.⁴⁰⁾

일제의 검열은 『인도』에도 손을 미쳤다. 『인도』의 편집인이 “편집의 곤란! 검열의 관계! 인쇄의 장애! 여러 가지 사정으로써 정기대로 간행해 본 적은 한 반도 없습니다.”⁴¹⁾라고 하여 편집과 인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검열의 관계”이다.

『인도』의 삭제 사항을 살펴보면 제3·4호에 2건, 제5호에 5건, 제2-1호에 1건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에 전문이 삭제된 것도 4건이나

10월에 발행한 제2-1호에 논문 2등, 고시 2등 및 등외(等外) 2편, 율시 1등과 2등 및 등외 9편을 수록했다. 필자는 『인도』 7호를 확보하지 못했다. 본문에서 서술한 제7호의 현상 논문 목록은 ‘현상모집규정’ 및 제2-1호에 근거하여 추정한 것이다.

39) 원고난은 연속물이 중간에 중단되는 현상에서도 나타나는데, 제3·4호에서 시작한 과학란과 농촌란은 제5호에서 중단되고 마는데, 이 역시 집필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유교부식회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40) 『개벽』의 발행 및 발매금지·정간 등에 대해서는 김중대, “개벽(開闢)”,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41) 『人道』 5호, 「讀者諸氏에게 謹告함」, 卷頭.

[표 2] 『인도』의 삭제 현황

호수	쪽수	제목/작자	삭제사항
3·4	210	술회(述懷)	전문 삭제
	257	방화(放火)/춘포(春圃)	전문 삭제
5	20	학부형 소망의 착오에 대하여/김은동(金殷東)	11행 삭제
	30	문명의 야만/황일성(黃伯性)	10행 삭제
	72	중국혁명시말기 중 가인(佳人)의 원수 갑고저 오삼계의 차병(借兵)/단산 역(丹山 譯)	1행 삭제
	88	단어사림(短語辭林)/편집실(編輯室)	전문 삭제
	129	포병공장파업(砲兵工廠罷業)/주작인 작(周作人 作), 단산 역	전문 삭제
2-1	140	상화(想華) 생명 생명(生命 生命)/이선준(李銑濬)	3행 삭제

된다. 내용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복원하기 쉽지 않지만, 앞뒤의 문맥이나 당대의 역사적 상황을 통해 몇 가지에 한해 삭제된 이유를 추정하고자 한다.

제3·4호의 「술회」는 전문이 삭제되었고 작자를 밝히지 않았다. 앞에 추양자(秋陽子)의 「신라회고(新羅懷古)」가 있고, 뒤에 추담(秋潭)의 「회인(懷人)」이 모두 시조임을 감안할 때 형식은 시조일 개연성이 높고, 내용은 조선의 역사나 인물에 관한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춘포(春圃)의 「방화」는 ‘승전(承前)’이라고 되어 있어 연작물임을 알 수 있다. 『조선출판경찰월보』는 ‘성욕으로 어떤 여성이 간부(姦夫)와 공모해 남편의 침상에 불을 질러 살해할 것을 밀의한다는 내용’⁴²⁾ 때문에 삭제한다고 했다. 그러나 『인도』의 성격상 음란한 말세의 사정을 실었을 리가 없다. 아마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조선과 일제의 관계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42) 『조선출판경찰월보』에 “출판경찰개황·불허가 차압 및 삭제 출판물 기사 요지”라는 쪽지가 있는데, 이곳에 『인도』를 검열한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5건이 있다. 각 호에서 『인도』를 검열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9호, 『인도』 창간호/1929.5.8, ‘유교의 진흥과 민족 단결을 주장하고, 赤軍戰友俱樂部員이 일본군에 대한 적화 선전을 목적으로 하바로브스크로 출발한 상황 등 기술’; 제10호, 『인도』 6월호/1929.6.13, ‘연산심상소 학교장의 폭력과 총파업 선동 기타’; 제12호, 『인도』 제3호/1929.8.27, ‘성욕으로 어떤 여성이 姦夫와 공모해 남편의 침상에 불을 질러 살해할 것을 밀의한다는 내용의 소설 「방화」’; 제16호, 『인도』 제7호/1929.12.6, ‘간디의 민족주의 혁명 사상 기타’; 제18호, 『인도』 제2권 제1호/1930.2.4, ‘인도의 간디와 그 인생관·영국 황태자의 인도 방문시 영제국의 강점에 항의하기 위해 총파업을 단행함 기타’; 『조선출판경찰월보』의 검열 현황에 대해서는 박태일, 앞의 논문, 120쪽 주석 21번 재인용.

것이 일제 경찰의 속내인 듯하다.

제5호에서 전문을 삭제한 「단어사림」은 일종의 시사용어를 설명하는 쪽지로 보인다. 다른 호에도 「단어사림」 쪽지가 있는데, 농노(農奴), 인신매매(人身賣買), 봉급생활자 문제, 근로소득 등을 다루고 있다. 제5호에서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일제의 지배에 반하는 어휘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5호의 주작인(周作人)이 짓고 단산(丹山)이 번역한 「포병공장 파업」은 ‘파업’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제5호가 발행된 1929년 11월을 기준으로 보자면, 1921년 8월에 부산부두노동자를 중심으로 5,000여 명이 파업했고, 1923년 8월에 평양양말직공조합원 1,000여 명이 임금 인하를 반대하는 파업을 일으켰으며,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노동운동으로 꼽히는 원산부두노동자 총파업이 1928년에서 1929년에 걸쳐 일어났다.⁴³⁾

이처럼 『인도』의 발행을 막은 가장 큰 원인은 일제의 검열이었다. 심지어 일제의 검열은 『인도』뿐 아니라 강연회까지 미쳐서 “본회에서 추기강연회를 음(陰) 9월 14일에 개최코저 하엿삽드니 경찰당국으로부터 돌연히 금지하와 부득이 연기하엿사오니 회원 및 유지제씨(有志諸氏)는 고량(高諒)하시압소서.”⁴⁴⁾라고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3. 『인도』의 구성 및 성격

1) 『인도』의 체제 및 구성

『인도』는 크게 표지, 목차, 본문, 편집여묵(編輯餘墨)과 판권사항으로 구성되며, 표지와 권두언(卷頭言) 사이 또는 편집여묵과 판권사항 앞뒤에 광고

43) 1920년 노동운동 및 파업에 대해서는 김윤환, “노동운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참고로 1920년대 전반의 노동쟁의건수는 1920년 81건, 1921년 36건, 1922년 46건, 1923년 72건, 1924년 45건, 1925년 55건, 1926년 81건, 1927년 94건, 1928년 119건, 1929년 102건이었다.

44) 『유교부식회보』 1호, 「謹告」, 38쪽.

또는 인도사의 안내사항을 알리는 공고가 있다. 본문은 권두언을 1쪽으로 시작하여 유교가 나아갈 바를 주장하거나 경전 구절을 해설한 유교란, 한시·시조·신시(新詩)·야담 등을 수록한 문예란, 농작물 재배법이나 과학상식 등을 소개한 실용란, 독자들의 의견을 모집한 독자투고란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획기사가 연속적으로 발행되지 못하고, 각 호마다 해당 쪽지 순서가 달라서 통일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소개하려는 편집진의 의도가 역력히 보인다.

『인도』는 유교단체에서 발행한 잡지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은 유교에 있었다. 제3·4호는 공자의 탄신일인 8월 27일에 맞춰 특집호로 구성되었다. 권수(卷首)에 「대성지성문선선사공자지상(大成至聖文宣先師孔子之像)」, 「석각오도자화공성지상(石刻吳道子畫孔聖之像)」, 「빙례상(憑几像)」, 「승로상(乘輅像)」, 「성묘도(聖廟圖)」, 「공림도(孔林圖)」, 「니산도(尼山圖)」와 같은 도판을 수록했고, 편집인 김은동은 「팔월이십칠일(八月二十七日)을 마지며」(3~16쪽)를 기고했으며, 편집실에서는 “소왕총사(素王總史)에 대한 일반적 고찰”(17~63쪽)이라는 주제로 ‘소왕약사’, ‘세계’, ‘시호’, ‘장복(章服)’, ‘성묘(聖墓)와 성전(聖殿)에 사죽성(絲竹聲)’, ‘칠십제자(七十弟子)’ 등을 실었다. 또한 “소왕공자탄강(素王孔子誕降) 이천사백팔십회(二千四百八十回)을 당하야”(65~88쪽)에서는 「고집성(固執性)을 버리어 이 날을 기념하자」(황일성), 「조선문을 보급하야 이날을 기념하자」(李桓珪), 「실행을 주중(注重)하야 이 날을 기념하자」(최명용), 「조선을 찬미하야 이 날을 기념하자」(심홍무), 「대성은 탄강하섯다」(황예성), 「기념의 이 날을 마지며」(전용옥) 등이 수록되었다.

유가의 경전을 해석하는 쪽지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경의해(經義解)」와 「경전유의연해(經傳類義衍解)」이다. 「경의해」는 경전의 특정 구절을 풀이하는 것이고, 「경전유의연해」는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 있는 구절을 풀이하는 것이다.⁴⁵⁾ 제6호를 예로 들면, 「경의해」(26~27쪽)는 『논어』의 “방어리이

45) 필자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경의해」는 3·4호와 6호, 「경전유의연해」는 3·4호, 5호, 6호에 수록되어 있다. 3·4호에 수록된 「경의해」는 전문이 삭제되어 내용을 알 수 없다. 「경전유의연해」의 경우 3·4호는 『맹자』의 인의(仁義)와 성선(性善)에 대한 구절을 다루

행다원(放於利而行多怨)”과 “백이숙제불념구악원시용희(伯夷叔齊不念舊惡怨是用希)”에 대해 풀이하고 있고, 「경전유의연해」(55~57쪽)는 “천리와 인륜의 바른 것”이라는 주제로 이른바 ‘문효사장(問孝四章)’로 알려진 『논어』 「위정」의 “맹의자문효(孟懿子問孝)”, “맹무백문효(孟武伯問孝)”, “자유문효(子游問孝)”, “자하문효(子夏問孝)”를 묶어서 풀이했다. 그리고 제2-1호의 「성학일반(聖學一斑)」(17쪽)에서는 퇴계와 율곡의 심성이기(心性理氣)에 대해서도 논했다.

또한 “유림계에 대한 각 방면 인사의 희망”(제3·4호, 89~102쪽)이라는 꼭지에서는 한용운, 안재홍, 유진태, 송진우 등의 의견을 수록하여 유교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를 돌파하고자 했다. 「유교 비운(否運)시대를 당해야 동포에게 애소(哀訴)함」(제3·4호, 2~15쪽)은 유교가 처한 당대의 어려움과 이를 헤쳐 나갈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특히 편집실에서는 “현대백가의 유교적 고찰”을 제5호~제2-1호에 걸쳐 연속으로 기획했는데, 각 호에 10쪽 내외 분량을 할애하여 유교와 현대사조, 유교와 민주주의, 유교와 공리주의, 유교와 이절주의(利切主義), 유교와 주관주의 등을 다루었다. 또한 제2-1호의 「종교신앙에 대하여」(26~37쪽)는 유교가 종교인지를 되물으며 종교라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되묻고 있다.

다음으로 『인도』의 문예란은 유교잡지가 아니라 문학잡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양적으로 풍부하고 양식도 다채롭다. 게다가 “문예”(제5호, 122쪽), “문예란”(제6호, 144쪽)처럼 꼭지 제목을 명기할 만큼 문예란을 특화시켰다. 유교잡지인 『경학원잡지』, 『유도』, 『일월시보』, 『창명』 등이 시문을 수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잡지들은 주로 한시가 중심이고, 국한문으로 된 시조나 가사 역시 작품 수가 많지 않고 내용도 단조롭다.⁴⁶⁾ 특히 한시는

고 있고, 5호는 오륜(五倫)과 관련된 『대학』의 “爲人子, 止於孝……”와 『맹자』의 “使契爲司徒, 教以人倫……”을 다루고 있다.

46) 예를 들어 『유도』 8호(1922.07.31.)에 수록된 국한문 작품은 「內地視察感想」(86~87쪽), 「祝靑年」(90쪽), 「修學歌」(91쪽), 「林石童傳」(99~100쪽)이다. 『일월시보』 5호(1930.9.30.)에도 국한문의 작품인 시조와 가사가 60~62쪽에 수록되어 있는데, 「님 向한 마음(時調)」, 「朔州乙山八景」, 「나의 생각을 쓰니」, 「새 決心을 가져라」, 「無題」, 「時調三章」, 「歌詞」, 「幸福歌」,

특정 행사나 사건에 대해 지은 송시(頌詩), 연작시 형태의 의례용 작품이 다수를 차지한다.⁴⁷⁾

『인도』의 표기 방법은 한문과 국한문혼용 두 가지이다. 문예란의 경우는 한문쓰기보다 국한문혼용쓰기의 비중이 높고 원고 분량도 많다.⁴⁸⁾ 한문쓰기는 한시 및 「독인도지(讀人道誌)」, 「송인도사(頌人道社)」, 「창주사도광회(滄洲祠道光會)」(이상 제2-1호, 120~121쪽) 등에 한정되지만, 국한문혼용쓰기는 시조, 신시(新詩), 소설, 야담, 희곡, 기행문 등 다양한 양식에 사용되었다. 다분히 독자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소설의 경우는 장작소설, 단편소설, 수켓치소설로 구분하여 수록할 정도로 양식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이다. ⁴⁹⁾ 한편 『인도』에는 하의객(荷依客)의 「며나리의 눈물」(6호, 123~135쪽)이라는 희곡이 1편 수록되어 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등쌀과 핍박, 중재하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쫓겨나는 것을 다루었다.

야담류로는 청구패설(靑邱稗說)의 경우 제3·4호에 「송말유민(宋末遺民)이 비가동래(悲歌東來)」(138~139쪽), 「모쾌(牡快)한 의적(義賊) 갈처사(葛處士)」(139~141쪽), 「금강강상(錦障江上)에 열녀 경춘비(瓊春碑)」(141~143쪽), 제5호에 「강원(姜媛)이 옥복부수(欲復父讐)」(57~59쪽), 「사귀(邪鬼)를 죽이는 법」(59~60쪽), 「윤정낭(尹貞娘)의 원한」(60~64쪽), 「남처사의 독효(篤孝)」(64~65쪽), 「맹호도 효열에 난 감동」(65~67쪽)이 수록되어 있다. 전설로는 제5호에 「부처담초(夫妻啖草)」(148~153쪽)가 있다.

「檀君頌」, 「마음」, 「嘆世吟」, 「希望의 꽃」이다.

- 47) 『경학원잡지』는 의례적 성격이 농후한 한시가 많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지 않는다. 『인도』처럼 지방 유교단체의 기관지인 『창명』 3호(1924.04.30)를 예를 들면, 「儒道彰明會第三回總會席上口呼韻」 122수, 「恭賀儒道彰明會韻」 6수, 「敬次儒道彰明會第二回總會韻」 11수, 「除夕」 10수, 「贈飛行士李商泰君」 6수, 「上元雅集」 10수 등이 수록되어 있다.
- 48) 박태일은 “Ⅲ. 『인도』 문예면의 부름겨”라는 쪽지에서 ‘1) 시의 의기와 민족 정체성’, ‘2) 이선준 수필의 걱정’, ‘3) 손재학 소설과 가족 문제’로 분류하여 『인도』에 수록된 시문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었다. 본고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박태일, 앞의 논문, 149~177쪽 참조.
- 49) 장작소설로 춘포(春圃)의 「放火」(제3·4호, 전문삭제), 수켓치소설로 춘포의 「버림당한 무리들」(제3·4호, 242~246쪽), 단편소설로 동악기(東岳寄)의 「새길을 발버」(제3·4호, 249~257쪽), 단편장작(短篇創作)으로 춘포의 「債鬼」(제5호, 138~148쪽)가 있다. 참고로 춘포의 「방화」는 제2호에서 시작되었는데, 제3·4호에서는 전문이 삭제되었다.

일종의 위인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서양 인물의 일대기를 수록하기도 했다. 흑인 노예 예방에 앞장 선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William Lloyd Garrison), 영국에서 독립하여 미국을 세운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이탈리아 건국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주세페 가리발디(Giuseppe Garibaldi)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수록하고 있는데,⁵⁰⁾ 계몽적 차원에서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위인전과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은 번역란이다. 청나라 오경재(吳敬梓)가 당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한 풍자소설 『유림외사(儒林外史)』를 우정(霧庭)이 번역하여 제1호~제6호까지 수록했으며,⁵¹⁾ 혁명이 일어난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단산(丹山)의 번역으로 제5호~제2-1호까지 「중국혁명시말기(中國革命始末記)」를 연재했다.⁵²⁾ 이외에도 남주(南洲)가 번역한 「췌-다-췌(피터팬) 었든 날 나의 맘에」(제5호, 124~125쪽)를 수록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실용란이다. 실용란은 실생활에 도움을 주거나 교양을 높일 수 있는 꼭지인데, 별도로 강좌란을 마련했다. 실생활 측면에서 보자면 생강과 파, 연(蓮)의 재배법을 설명하고 있는 「채소 재배에 대하여」(제3·4호, 148~151

50) 차례로 「墨奴解放의 先驅 카리슨」(제5호, 90~100쪽), 「英領의 羈絆을 一蹴하고 自由의 米國을 建設한 第一世大統領 와싱턴」(제6호, 137~143쪽), 「熱血志士 「가리발치」 將軍의 勝利」(제2-1호, 128~136쪽)이다.

51) 우정(霧庭)은 목차에 심홍무(沈鴻武)로 되어 있는데, 심상직(沈相直)으로 추정된다. 심상직은 『인도』에 가장 많은 원고를 수록한 인물로, 번역은 물론이고 한시, 시조, 논설 등 모두 17편을 수록했다. 심상직과 「유림외사」 연재 사실에 대해서는 박태일, 앞의 논문, 131쪽 주석 52번 참조.

52) 단산이 누구인지 미상이나, 주로 중국의 글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그가 번역한 주작인(周作人)의 「廠兵工廠罷業」(제5호, 129쪽)은 전문이 삭제되기도 했다. 「중국혁명시말기」의 연재의 이유 및 시작과 종료의 시말에 대해서는 『인도』에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인도』 5호, 「중국시말기」, 68쪽. 중국혁명시말기를 연재하는 이유 “이것은 明季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러한 중국 혁명의 一斑을 기록한 것이니 비록 참고의 힘이 적고 기술의 직조가 업서 독자 여러분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사실을 보고 이 시대를 도라보는 우리로써 엇지 감개의 눈물이 엄스며 침통한 느낌이 엄스리요.”; 『인도』 5호, 「편집여묵」, 卷尾, “금월호부터난 丹山 선생의 중국혁명시말기를 연재키로 되었습시다. 문제의 중국, 신흥의 중국. 그들이 혁명은 엇더한 과정을 거러왔는가? 싸러서 미래의 중국은 미래세계에 엇더한 파란을 일으키고야 말 것인가? 독자와 갖치 궁금하든 바입니다. 이 글을 읽고 여기서 풍운의 세계를 엿보소서.”; 『인도』 2-1호, 137쪽, “신흥 중국을 알나면 반다시 본지에 연재되든 중국혁명시말기를 보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말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금호호써 이것을 맞추게 되었스니 이 얼마나 아까운 일이라. 오즉 우리는 독자 여러분 압해 김히 사과할 뿐입니다.”

쪽)을 두었고 “가령강좌” 쪽지에서는 「염색법에 대하여」(제3·4호, 162~166쪽)을 수록했다. 또한 법률자문을 두어 편의를 제공했다. “법률고문(法律顧問)”(제2-1호, 155~159쪽)은 집행명령서의 유효 기간, 형사 사건에서 심문당할 때 위증죄 여부, 상품대금 독촉의 내용 증명뿐 아니라 개인이 처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해 자문했다.

“과학강좌”(제3·4호, 167~182쪽)에서는 「세계의 창성(創成)-공간과 시간 중에 잇난 지구」, 「암석의 조각된 과거장(過去帳)-최초의 생물」, 「지구의 연령」, 「극히 중요한 지질연대표」를 다루었는데, 이는 서구 학설들을 학습하여 교양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다.⁵³⁾ “과학상식”에서는 「월(月)이란 무엇!」(제2-1호, 52~61쪽)라는 제목 아래 소제목으로 ‘월은 지구 이외에도 있다’, ‘월의 장광(長廣)’, ‘지구로부터 본 月의 면적은 오십구파-센트’, ‘월의 산악’, ‘분화구’, ‘월면의 대균열’, ‘이상한 백조문(白條紋)’, ‘대평원’, ‘월은 적막한 세계’, ‘월의 온도’ 등 달의 거의 모든 내용을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

[표 3] 토막글 수록 호수와 내용⁵⁴⁾

권호	내용(쪽수)
3·4	[奇聞]地中海底의 城市(69), [奇聞]黑色助人入睡(77), [奇聞]無聲의 警笛(130), [挿話]中國의 靈魂(143), [奇聞]禽獸百年의 運動(151), [挿話]教師와 生徒(155), [挿話]呂洞賓의 夢(161), [挿話]酒와 煙草(166), [挿話]各國貨幣名稱(172), [挿話]動物의 壽命(179), [挿話]英雄의 淚(181), [挿話]格言(191)
5	[挿話]損私益公(27), [挿話]機械發明者(38), 링컨의 격언(89), [挿話]教師의 敬禮(100), 格言(121)
6	격언(6), 격언(36), 격언(54), 격언(57), 격언(69), 不言人過(88), 口난 何處에 在하뇨(122), 以德報怨(170), 이것은 普通流行하는 慈善家들이다(176)
2-1	紀行文募集(8), 社告(77), 上外勤記者募集(108), 新秋大講演會開催(125), 社告(136), 人道社友大募集(150) 등등

53) 『인도』 3·4호, 「開講하면서」, 167쪽. “본단을 설치함은 근대 서구학설을 그대로 발표하여 독자 제위의 참고의供하라 함이오니 이와 갓치 高諒하소서.”

54) 『인도』 전체의 토막글 현황이 아니라 필자가 소장한 자료에 국한된 자료이다. 참고로 제3·4호, 제5호, 제6호는 광고나 인도사의 안내사항 등을 제외했고, 제2-1호에는 격언이나 삽화, 기문이 없기 때문에 광고와 안내사항을 수록했다.

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토막글을 수록하기도 했다. 제3·4호와 제5호에서는 ‘기문(奇聞)’과 ‘삽화(挿話)’로 구분하였으나, 이후의 각 호에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다. 토막글의 형식이나 내용은 자유로워서 흥미를 돋우는 짧은 얘기나 상식을 높일 수 있는 정보, 귀감이 되는 격언 등을 수록했다. 다만 한 호당 몇 편을 수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투리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 적당한 토막글을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⁵⁵⁾

2) 『인도』의 특징 및 성격

『인도』는 충남 홍성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유교부식회가 발행한 유교 전문잡지다. 그런데 『인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동시대에 유교단체에서 발행한 잡지인 『경학원잡지』, 『유도』, 『일월시보』, 『창명』보다 1920년대 한국 최대 종합잡지인 『개벽』과 공통점이 많다. 『개벽』은 천도교청년회가 발행했지만, 신문화운동을 바탕으로 조선인을 계몽하려는 목표를 두었다. 그래서 권두언과 사설 등을 통해서 종교 사상은 물론 교육문제, 농촌문제, 사회문제 등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사상을 소개하고 다양한 시사 문제를 다루었고, 평균 8천 부의 판매부수를 올렸던 대중적 잡지였다.⁵⁶⁾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도』는 유교의 현재화를 꾀하고, 대중의 계몽을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항일과 민족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여타의 유교잡지와 다르다. 아래에서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 이를 통해 『인도』의 성격과 의의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인도』는 유교 전문잡지답게 경전의 구절 해설, 공자의 추송, 유교의

55) 자투리 공간의 활용은 반드시 토막글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6호는 스승을 부모처럼 섬겨 『오륜행실도』에 수록된 윤은보(尹殷保)와 서술(徐黼)의 일화를 수록하고 있다. 이 일화는 94쪽에서 시작하여 96쪽까지 이어지는데, 나머지 내용을 97쪽에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93쪽의 남은 공간에서 마무리했다.

56) 『개벽』은 1920년 6월 창간되어 1926년 8월 강제 폐간되기까지 72호를 발간한 종합잡지이다. 그 후 1934년 11월, 1946년 1월 두 차례나 복간되어 통권 85호까지 간행되었다. 『개벽』에 대한 설명은 강진호 외, 『한국근대문학 해제집』 2,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정보센터, 2016, 94-96쪽 참조.

정체성 확립 등과 관련된 원고를 수록하고 있지만, 그 방향성을 파고들면 보수유림의 색채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유교의 현재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명용은 당대 유교가 처한 상황을 비운(否運)의 시대 또는 과도기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유교부식회는 필사의 희생을 바쳐 선전하고 인도사(人道社)는 사람들에게 쉽 없이 권장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유교의 진리는 무엇인가. 최명용은 유교는 동양의 도덕을 일괄하는 대표 명사(名詞)라고만 말하고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⁵⁷⁾ 다만 “근래 소위 유자들은 도모지 시대의 감각이 업서 다만 편견의 오류만 그대로 고수하여 苟全性命으로 유일한 資身의 策을 삼을 뿐이다. …… 민족이 자기 몸과 상관업고 사회가 자기 집과 상관 업을 뿐이다.”⁵⁸⁾라고 하여 당대 유교가 처한 상황을 비평하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우회적으로 제시한다. 유자라면 양반과 상놈, 벼슬자리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민족이 무엇인지 사회가 무엇인지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정(靜)이라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망동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닌가. 비(譬)하야 말하면 거울이 암만 광명하고 물이 암만 징청하더래도 거울을 흔들면 연추미악(妍醜美惡)을 증험할 수 업서며 물을 내두르면 천광운영(天光雲影)이 배회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거울과 물도 안정하야 무슨 물건이 조응하는 것과 갓치 내 마음을 안정하야야 천하의 사고(事故)를 감응하는 대로 수통(遂通)할 것이다.⁵⁹⁾

인용문은 전용옥이 본원 공부의 요체를 설명한 부분인데, 내 마음을 망동

57) 최명용이 서양의 문물을 따라잡아 우리의 문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담아 서양에도 유교가 있다는 과도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비약이 심하기는 하지만 자아, 단결, 정의, 인도를 유교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人道』 5호, 崔鳴鏞, 「儒敎 否運時代를 當하야 同胞에게 哀訴함」, 13~14쪽. “歐洲人은 자아를 안다 그런 즉 구주인에게는 유교가 있고, 구주인은 단결이 있다 그런즉 구주인에게는 유교가 있고, 구주인은 정의와 인도를 말한다 그런 즉 구주인에게는 유교가 있다.”

58) 『人道』 5호, 崔鳴鏞, 「儒敎 否運時代를 當하야 同胞에게 哀訴함」, 13쪽.

59) 『人道』 6호, 田溶菴, 「우리의 本原工夫란 무엇인가」, 23쪽.

하지 않고 정(靜)하는 것을 요체로 보았다. 전용옥은 이 요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공부’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공부에는 체용이 있고 본말이 있는데, 체와 본 곧 본체를 공부하는 것이 본원을 함양하는 것이라 했다. 그렇다면 본원을 함양하는 공부는 무엇인가. 그는 “만물의 이치가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萬物皆備於我矣.]”(『맹자』 「진심 상」)라는 말을 인용하여 ‘아’는 나의 형체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 했다. 곧 “만사만물을 수응(酬應)하여 각득기소(各得其所)할 이치가 모다 나의 일편심중(一片心中)에 구비”되어 있으니, 심성 공부를 공부의 본원으로 삼아야 하고 이것이 바로 유교에서 말하는 존심양성하여 본원을 함양하는 공부라고 했다. 전용옥의 논의는 유가에서 특별히 새롭거나 참신한 이론이 아니라 지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일 뿐이다. 하지만 다음 논의를 보면 그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변동을 모르는 당대의 유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가의 공부하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급급히 심성을 수양하고 경전을 토구하는가. 대개 말하면 유이학지(幼以學之)는 장이행지(壯以行之)라는 말과 갖치 심성을 수양하여 용처(用處)에 착오가 업시 행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만일 용(用)하는 것이 업고 행(行)하는 바가 업시 심성만을 수양한다 하면 이것은 무용한 학문이니, 고목(枯木)이요 사회(死灰)이다.⁶⁰⁾

전용옥은 본원을 함양하기 위해 마음을 정(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논의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용(用)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간다. 그가 작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림계의 세태 때문이다. 이기, 심성, 존양, 성찰 이것은 무엇이며 저것은 무엇이니 하며 깨알같이 분석하여 천하의 일을 못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정작 어떤 일을 맞닥뜨리면 손발이 저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⁶¹⁾ 그런데도 자기의 영리(營利)를 챙기는 데 재빠른 것이 바로 유림이라고 지칭되는 인사들의 모습이었다. 이 때문에 유림들은 민족이나 국가, 세

60) 『人道』 6호, 田溶彥, 「위의 글」, 24쪽.

61) 『人道』 6호, 田溶彥, 「위의 글」, 24쪽.

계가 공존공영하는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면 한단지보가 될 것이다, 자격이 없다, 형세가 아니다, 공부가 부족하다 등 온갖 말로 변명하고 회피했는데, 전용옥은 “이것이 과연 유교의 정체(正體)인가?”⁶²⁾라고 하며 본원을 현재에 실현하고자 하는 용(用)을 강조했던 것이다.

둘째, 『인도』는 계몽적 성격이 강한 잡지이다. 『인도』는 유교잡지답지 않게 문예란의 비중이 높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회원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유교를 선전하고 대중을 교화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문예란의 비중이 높고 전문적이다. 게다가 유교 전문잡지인 『인도』가 과학, 농촌, 가정 등의 강좌를 마련한 점, 단어사림을 통해 시사용어를 다루는 점, 서양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점 등을 고려하면 종교 전문잡지가 아니라 계몽을 의식한 종합잡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식자(識者) 계급에 처하신 분들은 무식군(無識群)의 교양을 위하여 무식군은 자수양(自修養)을 위하여 이러케 시간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갱생의 길일 것입니다.⁶³⁾

이윤이 탕왕의 부름을 받고 나아갈 때에 자신의 포부를 밝힌 적이 있다. 선지자는 후지자를 깨우치고 선각자는 후각자를 깨우쳐 주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은 선각자이기 때문에 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 했다.⁶⁴⁾ 유교부식회가 계몽에 주안점을 둔 것 역시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도』에는 현실을 자각하고 헤쳐 나가려는 논지의 글들이 많다. 서양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독자를 양성하는 것, 곧 수준 높은 교양을 지닌 ‘세계 시민’을 양성하려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쪽지를 마련했던 것이다.

농노(農奴)⁶⁵⁾

62) 『人道』 6호, 田溶或, 「위의 글」, 25쪽.

63) 『人道』 6호, 편집여목, 卷尾.

64) 『孟子』 「萬章上」. “天之生此民也, 使先知覺後知, 使先覺覺後覺也. 予天民之先覺者也, 予將以斯道覺斯民也. 非予覺之而誰也.”

65) 『人道』 3・4호, 「新語辭林」, 152쪽.

농노는 봉건경제시대의 농민계급이오, 가장 주요한 노동자이다. 고대에는 노예가 가장 중요한 노동력의 제공자이었던 것이다. 중세에는 농노가 차(此)를 대(代)하여 그 역할을 하였다. 노예의 존재하였던 시대에는 농민계급은 있었는데 그 세에 피등(彼等)의 신분은 자유로웠다. 그런데 봉건제도의 발달과 갖치 자유농민은 종래의 노예와 혼합하여 농노라는 피착취자계급이 되기에 지(至)하였다. ……

『인도』는 「신어사림(新語辭林)」 또는 「단어사림(短語辭林)」을 두어 민중의 교양을 높이려고 하였다. 제3·4호에는 ‘농노(農奴), 일부일처(一夫一妻), 일부다처(一夫多妻), 인신매매(人身賣買)’, 제6호에는 ‘물가와 임은(賃銀)의 관계, 봉급생활자 문제, 영소작제도(永小作制度), 평민도서관’, 제2-1호에는 ‘온정주의, 근로소득, 경제학, 집합의식’을 다루고 있다. 제5호의 「단어사림」은 전문이 삭제되었는데, 시사에 민감한 어휘를 다룬 것으로 짐작된다.

[표 4] 기계발명자(機械發明者)⁶⁶⁾

기계	발명자	국적	비고
인쇄기(印刷機)	구텐베르크	독(獨)	Johannes Gutenberg
사진술(寫眞術)	니콜라-르스	미(米)	?
사진(寫眞)필름	아-스도만	미(米)	George Eastman
활동사진기(活動寫眞機)	에지슨	미(米)	Thomas A. Edison
망원경(望遠鏡)	카리레오	이(伊)	Galileo Galilei
기차(汽車)	스티븐슨	영(英)	George Stephenson
증기선(蒸氣船)	폴튼	미(米)	Robert Fulton
비행기(飛行機)	라이도	미(米)	Orville Wright, Wibur Wright
방직기계(紡織機械)	아-구라이도	영(英)	Richard Arkwright
⋮	⋮	⋮	⋮

위의 표는 서양의 기술문명을 이룩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과 발명품을 소개한 것이다. 이 외에도 새뮤얼 모스(Samuel F. B. Morse), 굴리엘모 마르코니(Guglielmo Marconi),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Alexander Graham Bell),

66) 『人道』 5호, 38쪽.

토머스 에디슨(Thomas A. Edison), 프랜시스 업턴(Francis Robin Upton), 로저 베이컨(Roger Bacon), 아이작 뉴턴 루이스(Isaac Newton Lewis)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기계발명자(機械發明者)」와 같은 토막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중의 교양을 제고하려고도 했다. 격언 중에는 유교의 경전 구절이나 동양의 격언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서양 인물의 격언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소크라테스의 “세계를 움지기라거든 자기로부터 움지이어라.”(제3·4호, 191쪽), 링컨의 “한번 먹은 목적으로 고집함에는 투견(鬪犬)과 갓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투견은 한번 무르면 엷더한 수단을 쓸지라도 도저히 늦치를 아니 한다.”(제5호, 89쪽)라는 격언을 소개하여 민중을 교양하고 계몽하고자 시도했다.

셋째, 『인도』의 민족적, 항일적 성격이다. 유교부식회는 항일운동가 김복한의 주변 인물과 후손, 제자 그룹이 주도하여 결성했고, 『인도』의 집필진 역시 이들이 중심이었다. 이 때문에 『인도』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문과 국한문이 되 일어(日語)는 없고, 집필진 역시 단 한 명의 일본인도 없었다.⁶⁷⁾ 이것은 일제강점기 유교 잡지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도』만의 특징이자 가치라 할 수 있으며, 『인도』의 발행은 민족의 자강과 함께 항일의 이념이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일제가 행한 검열 때문에 『인도』의 본문이 삭제되고, 발행이 멈추고 급기야 폐간에 이른 것은 『인도』가 민족잡지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인도』에는 「조선에 독특한 가배절」, 「청구패설」, 「온달장군의 출세담」처럼 조선의 풍속과 역사,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는 점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67) 그러나 여타의 유교잡지는 일본인 집필진이 축사를 하거나 그들의 글을 가감없이 번역하여 실고 있다. 『경학원잡지』는 세키야 테이자부로(關屋貞三郎)의 「朝鮮教育近況」(7호, 1915.6)을 실기 시작했고, 제1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謹呈雲養先生書」(12호, 1916.12)가 수록되었다. 『유도』는 구도 에이치(工藤英一), 후지카와 리사부로(藤川利三郎)의 축사 「祝儒道創刊」(1호, 1921.2)을 수록했다. 『창명』은 오즈카 다다에(大塚忠衛)의 「教育振興上 産業獎勵の 必要를 論함」, 사사키 쇼타(佐佐木正太)의 「儒道彰明會 第二總會에 際하여 所感을 披瀝함」, 구리노 덴노조(栗野傳之丞)의 「儒敎와 外來思想」(1호, 1923.7)이라는 논설을 실었다. 『일월시보』는 나카무라 구라요시(中村倉吉)의 축사 「祝日月時報」(2호, 1935.4)를 수록했다.

또한 현상 모집에서 「안시성주과적가(安市城主破敵歌)」를 고시(古詩) 부분의 주제로 내세웠고, 제7호와 제2-1호에 걸쳐 1등 1편, 2등 1편, 등외(等外) 2편의 원고를 수록한 것도 이의 연장선상이다. 그러나 “금호부터난 조선사담(朝鮮史談)을 꼭 게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편집 형편상 여의치를 못하게 되어 내호로 밀개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6호, 편집여목)라고 하여 일제의 방해 때문에 의도대로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글이 실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인도』는 꾸준히 우리 역사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인도』 6호는 12월에 발행되었지만, 음력으로 10월에 해당하고, 10월에는 개천절이 있는 달이다. 「권두언」 앞에 단군의 초상화를 수록하고 있으며, 김은동은 「사천이백육십삼회(四千二百六十三回)의 개천절을 마지며」에서 “또 10월 3일을 마지하게 되니 이 날은 즉 우리 성조 단군의 위대하신 개천절이다.”라고 하여 제6호가 단군 특집호임을 천명했다.

누가 못기를 이 세계 중에서 가장 고대 문명국이 어디냐?하고 우리의게 말한다 면 무에라고 대답하여야 가장 솔직한 답변이 될 것이며, 일반이 그러타고 공인하게 될 것인가? 일시에 구주의 풍운을 좌우하고 만인의 간담을 놀내이던 독일을 가려쳐 말할 것인가? 그러치 아니하면 현재 황금의 세력을 밋고 무쌍한 행동을 감행하는 아미리가를 지적할 것인가? 아니다. 이 모두가 아니다.

다만 그것은 여러 말을 할 것이 업시 서방에서난 애급(埃及)을 말할 것이요, 동방에서난 우리 조선을 제(除)하고는 말할 곳이 업슬 것이다. 그 만치 조선은 문화의 국(國)이었으며 역사의 국(國)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토지난 말 못할 만치 황폐석락하고 마릿스니 금일의 현상을 금인(今人)이 본다면 이것을 누가 시인하고 누가 이것을 이해하랴.⁶⁸⁾

인용문은 “통속강좌” 꼭지에서 서해빈인(西海濱人)이 「조선의 지리」를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한 부분이다. 「조선의 지리」는 ‘변선(變遷)해야 온 조선의

68) 『人道』 6호, “通俗講座”, 89쪽.

판도'와 '단군조선과 그의 판도'로 구성된다. 유교잡지에서 개천절을 기념하고 단군조선의 판도를 다루는 것이 의아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도 우리 민족의 역사적 연원을 상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문화적 기원을 기자(箕子)에 두고, 혈연적 기원을 단군에 둔 것을 감안할 때 공자와 단군을 함께 다루는 것이 모순되는 상황은 아니었다.⁶⁹⁾

圖 畧 鮮 朝 君 壇



[그림 2] 『인도』 6호(고려대 도서관)

「조선의 지리」에서는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에서 제주도와 울릉도에 이르는 현재의 판도를 직시하면서도 단군조선의 판도를 강조했다. 현재의 판도가 아니라 서쪽으로는 중국의 진황도(秦皇島), 북쪽으로는 니항(尼港, Nikolayevsk)과 포염사덕(浦鹽斯德, Vladivostok)을 거쳐 러시아 영토인 연해주까지, 그리고 북서쪽으로 송화강과 흑룡강을 지나는 판도를 제시했다.⁷⁰⁾

또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인도까지 영역을 넓혀 화려한 문명을 세계에

69) 이것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과도 관계된다. 이념에서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 등은 물론이고, 종교에서 유교, 기독교, 천도교를 막론하고 '민족'이라는 키워드를 공통분모로 삼았으며, 그들의 목표는 '독립'에 놓여 있었다.

70) 『人道』 6호, 西海濱人, 「조선의 지리」, 92쪽.

자랑하던 영국과 국운이 쇠하여 관동주(關東洲)와 대만을 외국의 수중에 넘긴 중화민국을 비교하며 “국토와 그 민족의 영쇠(榮衰)난 불가상리(不可相離)의 연속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⁷¹⁾라고 했다.

서해빈인이 우리의 역사적 기원을 단군으로 소급하면서 반만년의 유구한 전통을 강조한 것은 “조선은 문화의 국(國)이었으며 역사의 국(國)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이 처한 현실은 판도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나라마저 빼앗긴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반만년 전에 이미 문명국을 건설한 역사가 있으며, 이것은 현재를 극복하여 과거의 문명국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4. 결론

본고는 일제강점기 잡지 중에서 1929년 6월에 창간호를 시작으로 통권 9호를 발행한 유교부식회의 잡지 『인도』의 체제 및 성격을 고구했다.

『인도』는 충남 홍성에 기반을 두고 활동한 유교부식회가 발행한 기관지이다. 유교부식회는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했던 김복한의 후손 및 제자들이 결성한 단체였다. 대부분의 유교단체가 식민지 관료와 친일파 인사가 주도한 어용단체였음에 비해 유교부식회는 항일·민족적 성격이 강한 단체였다.

『인도』는 1929년 6월 15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1931년 3월 15일 종간호까지 1년 9개월간 통권 9호를 발행했고, 『유교부식회보』 1호도 발행했다. 일제의 검열 때문에 전문(全文) 또는 몇 행이 삭제되는 일이 많았고, 9개월간 휴간하기도 했다. 『인도』는 여느 유교 전문잡지처럼 공자를 기리고, 유가 경전을 해설하고, 유교의 덕목을 선전하기 위한 꼭지를 앞부분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 문예, 농촌생활, 시사용어 등의 꼭지도 마련하여 전문잡지임에도 종합잡지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은 유교부식회가 ‘생민’과 ‘민중화’에 주

71) 『人道』 6호, 西海濱人, 「위의 글」, 91쪽.

안점을 두었고, 생민의 교양과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인도』는 유교의 현재화를 피하고, 대중의 계몽을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항일과 민족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여타의 유교잡지와 다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도』는 유교 전문잡지답게 경전의 구절 해설, 공자의 추숭, 유교의 정체성 확립 등과 관련된 원고를 수록하고 있지만, 그 방향성을 파고들면 보수유림의 색채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유교의 현재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도』는 계몽적 성격이 강한 잡지이다. 과학, 농촌, 가정 등의 강좌를 마련한 점, 단어사림을 통해 시사용어를 다루는 점, 서양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점 등을 고려하면 종교 전문잡지가 아니라 계몽을 의식한 종합잡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인도』의 민족적, 항일적 성격이다. 유교부식회는 항일운동가 김복한의 주변 인물과 후손, 제자 그룹이 중심이었다. 이 때문에 『인도』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문과 국한문이되 일어(日語)는 없고, 집필진 역시 단 한 명의 일본인도 없었다. 아울러 문명국을 자부하고, 단군(檀君)을 소환하며, 조선 민중을 우선했다.

■ 참고문헌

儒敎扶植會, 『人道』·『儒敎扶植會報』.

經學院, 『經學院雜誌』.

乳道振興會, 『儒道』.

全羅南道儒道彰明會, 『彰明』.

朝鮮儒敎會, 『日月時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강진호 외, 『한국근대문학 해제집』 1~4,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정보센터, 2015~2018.

김근수, 『한국잡지연구』, 한국학연구소, 2004.

박찬승, 『한국독립운동사-해방과 건국을 향한 투쟁』, 역사비평사, 2014.

김봉곤, 「일제의 종교정책과 유교-전남의 유도창명회(儒道彰明會)와 관련하여」, 『한국종교』 40,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2016, 149~186쪽.

金祥起, 「한말 일제하 洪城지역 儒林의 형성과 항일민족운동」, 『한국 근현대사 연구』 31, 한국근현대사학회, 2004, 85~108쪽.

박태일, 「홍성의 유교 잡지 『인도』 문예면」, 『批評文學』 69, 한국비평문학회, 2018, 111~186쪽.

변은진,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 기관지의 현황과 성격」,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목록』, 도서출판 선인, 2020, 9~32쪽.

정옥재, 「『彰明』의 구성과 성격」, 『전라남도유도창명회 『彰明』』, 선인, 2020, 9~26쪽.

Study on *Indo*(人道) of Yugyobusikhoe(儒教扶植會)

SUH Junghwa

Since from 1920 to 1936, Japanese Empire changed the policy direction from the coercive military rule to deceptive cultural governance, over 200 kinds of magazine were published. The magazines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specific organization or claiming to advocate the religion, arts, etc. appeared and there were various magazines published by Confucian organizations. *Indo* is the official magazine published by Yugyobusikhoe, which was active having its base in Hongseong, Chungnam. Yugyobusikhoe is the organization established by the descendants and the followers of Kim Bok-Han, who participated in Paris-Jangseo Movement(Korean Confucian literati's petition to Paris Peace Conference in 1919). Most of Confucian organizations are the government service organization leaded by the colonial officials and the figures of pro-Japanese faction but Yugyobusikhoe was the organization having strong anti-Japanese and ethnic nature. This paper investigated the publication and the nature of *Indo* published by Yugyobusikhoe. *Indo* was published total 9 issues for 1 year and 9 months from its first issue on June 16, 1929 to its final issue on March 15, 1931 and Yugyobusikhoe published Yugyobusilhoe Magazine No.1, too. Due to the inspection of Japanese Empire, entire texts or a few rows were deleted a lot and the publication was suspended for 9 months.

Indo is Confucian magazine and is the general magazine dealt with the issues in the literature, practical use, refinement, current affairs, etc. and its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First, *Indo* published the manuscripts related to the explanation on the phrases in the scriptures, praise for Confucius, identity establishment

of Confucianism, etc. as it is the Confucian magazine but it placed the weight on making-present Confucianism. Second, *Indo* has strong enlightening nature such as making the lectures such as science, agriculture, domestic science, etc. to reinforce the refinement, introducing the current terms, etc. Third, *Indo* has ethnic and anti-Japanese nature that claiming that Korea is a civilized country, summoning Dangun(檀君) and prioritizing people of Joseon, etc.

Key Words : Yugyobusikhoe(儒敎扶植會), *Indo*(人道), Magazine,
Confucian organization, Making-present(現在化),
Popularization(民衆化), Practicalization(實用化)

TAE-DONG REVIEW OF CLASSICS

Volume 45, December 2020

Special Issue

Study on *Indo*(人道) of Yugyobusikhoe(儒教扶植會)

SUH Junghwa

Symbolism of Seokjeon and the Colonial Transformation of Hyanggyo Seokje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HANG Soon-soon

Establishment of Community in Jeonju-hyanggyo(全州鄉校) and Community Activities in Modern History

SEOL Juhee

An Essay on Confucian Network of Post-Confucius Society

HONG Seong-duk

A Re-discussion of Tao Yuanming's Family Standing: An Investigation Based on Official System

LIU Yi, CHOI Jiyoung

Articles

A Study on Diverse Characters Identified from the Prefaces and Epilogues of Gandokcheop (Book of Letters and Poems) and Ganchalseoshikjip (Book of Letters)

KIM Saemio

A Study on the Old Materials of the Taedong Center for Eastern Classics's Collections

LEE Jung-hyo, PARK Sun-hee

An Essay on the Author(s) and the Writing Period of the *Zhouli*(周禮)

KIM Jun Hyeon

On the Structure and Philosophical Significance of Park Se-chae's(朴世采) *Sim-Hak-Ji-Gyeong*(心學至訣)

LEE Chang-il

Shin Hudam's Way of Thinking in His Theory of Four-Seven

LEE Jaebok

The Life-Communal Goodness and Life-Aesthetics in *the Book of Changes*: An Integrated Boundary without any Division of Boundaries

KIM Yon-jae

Forgiveness Interpretation of East Asian Confucianism Studies

CHO Nam ho

The Preface to *Seongho saseol yuseon*(星湖僿說類選)

CHOI Chae-gi

A Partial Translation of *Zhouyimingyi*(周易明意)

BAEK Jonghak

Book Review: Critical Comments on *Zhouyimingyi*(周易明意)

BAEK Jonghak

Appendix

Translation

Book Review

**THE TAEDONG CENTER
FOR EASTERN CLASSICS**

